

민관이 함께 야적퇴비 정비... 낙동강 녹조 예방에 힘 모은다

- 기후부, 낙동강수계 하천변 야적퇴비 정비 실천활동(캠페인) 펼쳐
- 퇴비 적정 보관,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31일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일원에서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야적퇴비 정비 실천활동(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활동은 하천 주변에 쌓아두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야적퇴비에 비가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퇴비의 적정 보관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천활동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을 비롯해 경상북도, 구미시, 축산환경관리원, 한국환경보전원, 농협경제지주, 구미칠곡축협, 지역농가 등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관계자가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오랫동안 방치됐거나 농가에서 바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퇴비를 직접 수거해 인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로 옮겨 처리한다.

이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야적퇴비에 빗물 차단용 덮개를 씌우고, 이미 씌워둔 덮개는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살핀다.

이렇게 하면 빗물이 퇴비에 스며드는 것을 막아 퇴비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질소·인 등 양분이 주변 토양과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야적퇴비를 잘 관리하는 것은 녹조를 일으키는 양분이 하천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막는 방법이다. 퇴비가 빗물에 노출되면 퇴비에 포함된 질소·인 등이 침출수 또는 지표 유출수의 형태로 가까운 하천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하천 주변 야적퇴비에 덮개를 씌우고 쓰고 남은 퇴비를 제때 수거하는 등 오염물질이 흘러나오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로 침출수가 생기지 않도록 야외에 임시로 보관하는 퇴비는 덮개 등으로 단단히 덮고, 쓰고 남은 퇴비는 제때 수거하는 작은 실천이 녹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퇴비를 제대로 보관·관리하는 방식이 현장에 자리 잡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관계기관, 농가와 함께 수질보전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낙동강수계 야적퇴비 정비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주창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장정호	(044-201-7010)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장재훈	(044-201-7076)

□ 개 요

- (목 적) 낙동강수계 하천 인근 야적퇴비 정비 캠페인을 통해 퇴비 적정 보관 및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일 시) 2026. 8. 31(월), 11:00 ~ 17:00
- (장 소)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679번지
- (참 석) ▲(중앙정부) 기후부, 대구지방환경청 ▲(지방정부) 경상북도, 구미시 ▲(유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환경보전원, 구미칠곡축협, 농협경제지주, 자원화시설, 농가 등

□ 주요내용

- (수거) 장기간 방치된 야적퇴비 수거(인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 구미칠곡축협자연순환센터(95톤/일: 퇴비화 65, 액비화 30)
- (정비) 침출수 유출 방지, 강우시 빗물 유입 방지 등을 위한 비닐덮개 정비



야적퇴비 정비 캠페인



캠페인 내용

□ 세부일정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3:30~13:50	20'	① 현장브리핑 등	구미시 낙동강 수계 인근 야적퇴비 현장
13:50~14:30	40'	② 야적퇴비 수거	
14:30~15:10	40'	③ 덮개 정비	